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놀이 중 또래상호작용: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매개역할을 중심으로* **

Maternal Overprotection and Young Children's Interactions with Peers During Play:
The Mediating Roles of Social Immaturity and Withdrawal of Children

변수빈¹ 신나리²

Soo Bin Byoun¹ Nary Shin²

ABSTRACT

Objec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pathway from mothers' overprotective parenting to their child's peer play interactions mediated by internalizing problems, that is, social immaturity and withdrawal.

Methods: Surveys were conducted on mothers and teachers of 341 children aged three to five. SPSS 22.0 was used to analyze the data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Structural modeling analysis was also implemented to test theoretical model using AMOS 21.0.

Results: Maternal overprotective parenting, which increased social immaturity of their child, indirectly reduced the child's positive interactions with peers during play. Mothers' overprotection led to a higher level of withdrawal of their child while the effect of children's withdrawal on their peer play interaction was not significant. Because overactive parenting of mothers had no direct effect on peer play interaction, the complete mediation model representing a path from maternal overprotection to children's peer play interaction via their internalizing problems was partially supported.

Conclusion/Implications: This study shows that overprotective mothers hinder their child to experience confident and mature manners, and eventually lead their child to be socially unskillful and incompetent. It was suggested to explore mor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mothers and children to help overprotective mothers to take a step back.

* 본 논문은 2020년 한국보육
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
터 발표되었음.

** 본 논문은 2020년 충북대학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의 일
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¹ 제1저자

푸르니 LG청주어린이집 교사

²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binah2009@cbnu.ac.kr)

key words maternal overprotection, social immaturity, withdrawal, peer play interaction

I. 서론

유아는 성장하는 동안 다양한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고, 관계의 대상은 가족 구성원에서부터 또래 및 그 밖의 사람으로 점차 확대되어 간다. 현대 사회의 여러 변화로 유아가

기관에서 지내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면서 타인과 즐겁게 교류하고 집단에 잘 적응하며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을 획득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정현빈, 2010). 특히 또래와의 상호작용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이후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줄뿐 아니라(손은애, 2006; 정진나, 2018; 홍정민, 2008; Ginsburg, 2007), 인지적인 문제해결 능력이나 학습준비도 및 학업성취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민미희, 2019; Burgess & Ernst, 2020; Denham, 2006; Eggum-Wilkens et al., 2014; Shearer, McWayne, Mendez, & Manz, 2016).

Fantuzzo 등(1995)은 유아의 놀이 맥락을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다른 맥락에 비해 놀이 장면이 사회적 행동을 평가하는데 유용하다고 보았다. 이는 자연스러운 놀이 상황에서 유아는 누구와 어떤 상호작용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wla, Keena, Pevec, & Stanley, 2014), 놀이 중 또래와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래놀이 상호작용이란 유아가 사회적 대상인 또래와의 놀이 중에 나타나는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으로(최혜영, 이은혜, 2005), 친구와 놀이를 계속하기 위해 상호작용을 유지하는 행동과 놀이 지속에 장애가 되는 행동으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놀이 중 상호작용을 잘 하는 유아는 또래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표현하고, 놀이에 친구를 초대하며, 돕기 또는 위로하기 등의 행동을 하고, 놀이를 구성지게 이어갈 수 있다. 반면 또래와의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는 유아는 싸움을 하거나 놀잇감을 뺏고 차례를 지키지 않는 등의 놀이를 방해하는 행동을 빈번하게 보이며, 또래로부터 거부당하기도 하고, 놀이를 하는 집단에 참여하지 못하고 그 근처를 배회하기도 한다. 이에 Fantuzzo, Coolahan, Mendez, McDermott 그리고 Sutton-Smith(1998)는 유아가 또래와의 놀이 시 주로 보이는 상호작용을 크게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로 구분하고, 놀이 중에 일어나는 긍정적인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부정적 상호작용까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한편, 저출산이 심화된 우리나라는 소수의 자녀에게 지나친 보호와 관심을 쏟는 자녀중심적인 가족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자녀에 대한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로 이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자녀에 대한 지나친 통제와 간섭, 나이에 걸맞지 않은 과도한 돌봄과 보호를 특징으로 한다(김성희, 정옥분, 2011). 즉, 과보호란 부모가 자녀와 관련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해 자녀의 행동이나 사회적 활동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발달 단계에 맞지 않게 자녀가 할 일을 대신해주는 것으로(정은영, 장정숙, 2008), 자녀의 자율성과 주도성을 저해하는 양육특성으로 정의되어 왔다. 특히 가정 내에서 유아기 자녀의 주 양육자 역할을 담당하는 성인이 일반적으로 어머니이며, 아버지에 비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아(Bögels & van Melick, 2004),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주목받아 왔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어머니가 과보호적으로 양육할수록 유아는 또래관계에서 주도적이지 못하고(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박주희, 이은혜, 2001), 협동 수준이나 및 공감 능력이 낮았으며(강주희, 2013), 사교성이 부족하고 또래의 호감을 얻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oh & Falbo, 1999). 이는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주도성을 발휘할 기회를 갖지 못한 유아가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기대되는 행동이나 규칙을 효과적으로 익히지 못하고, 갈등이 발생할 때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워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과보호로 인해 사회적 유능성이 낮아진 유아는 또래와의 놀이 중에도 상호작용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증가시키는 반면 놀이상호작용은 감소시켜, 놀이 중 상호작용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문혜련, 엄정애, 2009; 이선미, 강윤희, 2018; 조운주, 김은영, 2014).

그러나 그간 어머니의 과보호 및 자녀의 발달과 관련하여 많은 연구자가 주목해온 부분은 어머니의 과보호가 자녀의 다양한 사회적 기술과 유능감 발달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보다는 심리적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이는 불안이 어머니의 과보호의 기저를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으로, 과보호를 받은 자녀 또한 불안 증세 또는 불안 장애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일관되게 보고되어 왔다(Clarke, Cooper, & Creswell, 2013; Lowinger & Kwok, 2001; van der Bruggen, Stams, & Bogels, 2008). 이에 유아기와 같이 생애 초기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 관련 연구는 자녀의 분리불안 등에 집중되어 왔다(이정희, 한세영, 2019).

불안을 과보호의 기저로 보는 것은 어머니가 자녀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거나 과도하게 자녀를 보호하려는 과보호적인 행동의 이유가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하거나 자녀가 취약한 상황으로 인지하는 염려와 걱정에 기인하기 때문이다(Benedek, 1970). 이 같이 불안한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는 부모와 개별화-분리를 하지 못해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되며, 어머니 없이 낯설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에 놓이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의 부족으로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류정민, 신나나, 2018; 정윤희, 이인수, 2012). 따라서 어머니의 높은 과보호 수준이 또한 유아의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를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는 개인이 건전한 적응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때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자신의 내면으로 향하는 장애로, 유아기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내재화된 문제로는 불안/우울 이외에 신체화 증상, 위축, 사회적 미성숙 등을 들 수 있다(Achenbach, 1991). 이 중 어머니의 과보호에 영향을 받는 자녀의 특성으로 불안에 연구자의 관심이 집중된 관계로, 그 외 내재화 문제는 과보호에 영향을 받는 특성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과보호를 받은 아동의 경우 사회적으로 위축된 모습을 보이거나 성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일반적인 특성이므로(이숙, 최정미, 2006; Burgess, Rubin, Cheah, & Nelson, 2001), 사회적 미성숙 또는 위축과 같은 문제를 통해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기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이 매개되는지 탐색해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미성숙은 유아가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어떤 행동이 규제받으며 어떤 행동은 승인되는 것인지를 적절하게 학습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유아는 규준이나 기대에 맞는 행동 대신 성인에게 과도하게 의지하거나 동생들과 어울리기를 선호하며, 잘 우는 등 나이에 비해 비사회적인 행동을 한다(김지현, 정지나, 2011; 오경자, 하은혜, 이해련, 홍강의, 2007). 한편 위축은 부정적인 자아지각으로 인해 자신의 결함이나 불만족스러운 특성에 주목하는 것을 의미한다(Rubin & Mills, 1991). 위축된 아동은 자신을 표현하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 해야 할 상황에서 긴장하고 수줍어하며, 사회적 기술의 부족으로 자신감이 결여되

는 경향을 보인다(박지현, 2010). 특히 위축 아동이 겪는 일상생활 중 빈번한 실패와 욕구 좌절은 낮은 행복감과 자존감으로 이어져, 자라면서 여러 적응상의 문제를 경험하게 될 위험성이 크다(배현주, 2003).

주양육자가 자녀를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자녀의 자조기술 습득의 기회를 자신이 대신하는 경우, 자녀의 자율성이 저해된다는 것은 그간 널리 알려져 왔다(Wood, Kiff, Jacobs, Ifekwunigwe, & Piacentini, 2007). 특히 Adler와 같이 부모자녀 관계에 기초한 개인심리학 관점을 취하는 학자들은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자신감이 결핍되고 과도한 의존 또는 욕구 불만을 갖게 된 아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경험하여, 신경증적이고 정신병리적인 성격 형성의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김춘경, 2000).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 중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에 대한 원인으로서 어머니의 과보호를 다루는 것은 의미있다고 하겠다.

특히 사회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위축된 유아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교류하는 또래의 범위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회적인 고립은 사회적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기회의 축소로 이어져, 또래와의 관계에서 부적응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류호정, 채규만, 2017; Kostelnik, Soderman, Whiren, Rupiper, & Gregory, 2017). 즉, 유아의 위축되거나 미성숙한 행동은 또래와의 놀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놀이 행동을 축소시킬 수 있다(Nelson, Rubin, & Fox, 2005). 최근 다수의 국내 연구에서도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 수준이 높을수록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세리, 이강이, 2016;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그러나 이들 선행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다루고 있지 않으며, 해당 주제의 국내 연구 대부분이 한국아동패널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표본을 이용한 경험적 증거의 축적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유아의 내재화된 문제행동 중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다양한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를 받은 유아기 자녀가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이라는 내재적인 문제를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받는지 검토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라는 측정변인에 의해 구성된 특성으로 보고, 어머니의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이르는 직·간접적인 경로를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가 어리거나 여아를 둔 경우에 두드러지며(이정희, 한세영, 2019; Burgess et al., 2001; Hastings & Rubin, 1999),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남아에 비해 여아가 더 긍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관되게 보고되는 바(권연희, 2012; 김정림, 허미경, 2013; 민미희, 2019; 정선교, 안선희, 2006; 최소영, 신혜영, 2015),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과 성별을 모형에 포함하여 연구모형의 결과를 보다 명료하고 정확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이로써, 또래와의 놀이 중 적절하게 상호작용하는 유아기의 사회적 역량 발달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어머니의 특성과 유아의 특성을 밝히고,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지도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이상의 목적을 위해 설정된 본 연구의 연구문제와 연구모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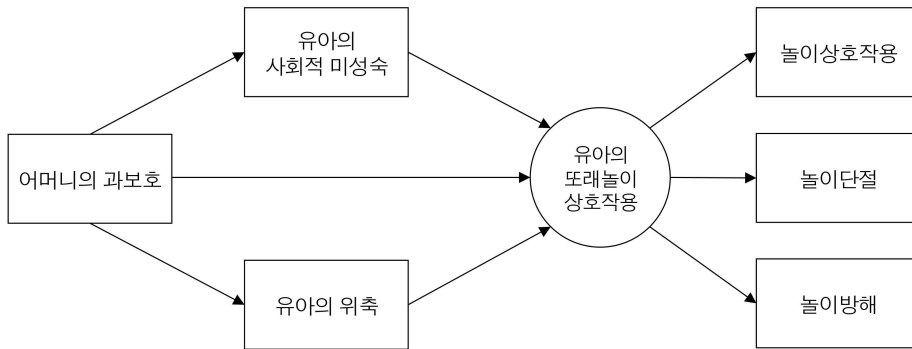


그림 1. 연구모형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북에 소재한 9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 3세~5세반 유아 341명의 어머니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유아의 월령은 평균 67.06개월이었으며, 남아가 53.8%, 여아는 47.2%로 남아가 다소 많았다. 출생순위 상 둘째가 39.3%로 가장 비율이 높았으며, 첫째(28.7%), 외동(22.7%), 셋째 이상(9.4%)의 순으로 보고되었다. 어머니 341명의 평균 연령은 36세였으며, 학력은 고졸 이하, 전문대졸, 대졸 이상이 각각 34.9%, 30.5%, 34.6%로 비슷한 비율이었다. 전업주부의 비율은 34%였으며, 취업모의 경우 직업은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22%)과 사무직(20.8%)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담임교사 32명의 평균 연령은 약 31.7세로, 학력은 반수가 2, 3년제를 졸업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대학원을 졸업한 경우 또한 21.4%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한 기관은 2, 3년제와 4년제가 각각 46.9%와 40.6%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경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반수였으며, 5년 미만과 10년 이상이 각각 37.5%와 12.5%로 보고되었다. 담당하는 반은 3세, 4세 및 5세반이 거의 유사한 비율이었으며, 혼합연령반을 담당하는 교사는 없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

특성	빈도(%) 또는 <i>M(SD)</i>	특성	빈도(%) 또는 <i>M(SD)</i>
유아 월령	67.1(9.9)	교사 연령	31.7(7.4)
유아 성별		교사 학력	
남아	180(52.8)	2,3년제 졸업	15(50.0)
여아	161(47.2)	대학교 졸업	11(34.4)
유아 출생순위		대학원 졸업 이상	5(15.6)
외동	77(22.6)	자격 취득 기관	
첫째	98(28.7)	보육교사연구원	2(6.3)
둘째	134(39.3)	사이버/방송통신대학교	1(3.1)
셋째 이상	32(9.4)	학점은행제	1(3.1)
어머니 연령	36.0(4.1)	2,3년제 대학	15(46.9)
어머니 직업		4년제 일반대학교	13(40.6)
전업주부	116(34.0)	교사 경력	
사무직	71(20.8)	5년 미만	12(37.5)
관리직/전문직	32(9.4)	5년 이상 10년 미만	16(50.0)
생산근로직/단순노무직	75(22.0)	10년 이상 15년 미만	3(9.4)
판매서비스직/기타	47(13.8)	15년 이상	1(3.1)
어머니 학력		담당 학급	
고졸 이하	119(34.9)	3세	12(37.5)
2,3년제 졸업	104(30.5)	4세	10(31.3)
대학교 졸업 이상	118(34.6)	5세	10(31.3)

주. 유아 및 어머니의 사례수는 341명, 교사 사례수는 32명임.

2. 연구도구

1) 또래놀이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또래와의 놀이 중 상호작용을 측정하기 위해 Fantuzzo 등(1998)이 개발한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PIPPS)를 최혜영과 신혜영(2008)이 타당화하고, 한국아동패널 연구(육아정책연구소, 2016. 5. 25)에서 일부 수정된 ‘또래놀이 행동척도’를 사용하였다. 교사용 평정척도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총 30문항으로, 하위 차원은 놀이상호작용 9문항, 놀이방해 8문항 및 놀이단절 1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잘 되는 것을 의미하는 놀이상호작용은 ‘친구 사이의 갈등이 해결되도록 돕는다’ 등의 놀이를 순조롭게 이어가는 특성으로 구성되었다. 놀이단절은 ‘다른 친구에게 거부당한다’와 같이 위축되거나 타인에게 거부 또는 무시당하는 특성을 나타낸다. 놀이방해는 놀이 중 또래에게 부정적이고 공격적인 정서 표현을 드러내는 것으로, ‘친구의 물건이나 놀잇감을 부순다’ 등이 대표적인 문항이다.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인 본 도구는 타당화된 척도이므로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도를 알아보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내적합치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은 .85, 놀이단절은 .88, 놀이방해는 .90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2) 과보호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태도는 Parental Protectiveness(Doh & Falbo, 1999)를 소언주(2001)가 수정, 보완한 '과보호적 양육태도'도구를 사용하였다. 어머니가 응답한 본 도구는 '아이가 옷 입는 것을 도와줄 때가 많다'와 같이 자녀를 나이보다 어린 자녀처럼 대해 독립성을 방해하는 아기 취급행동(baby behavior) 7개 문항과 '아이가 밖에 있으면 안심할 수 없다'와 같이 자녀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하며 걱정하는 특성인 보호행동(sheltering behavior)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과보호적임을 의미하는 이 척도는 4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1점, 매우 그렇다 = 4점)로 제작되었다. 요인분석 결과 12개 문항이 하나의 요인으로 묶여, 전체 문항의 평균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내적합치도인 Cronbach's α 또한 .76으로 보고되었으며, 제거 시 전체 내적합치도에 개선에 크게 기여하는 문항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분석에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본 연구에서는 Achenbach(1991)의 Child Behavior Check List(CBCL)를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그리고 홍강의(2007)가 한국형으로 표준화한 '아동·청소년 평가척도(K-CBCL)'의 사회적 미성숙 8개 문항과 위축 8개 문항을 사용하였다. K-CBCL은 문제행동을 평가하는 문항에 대하여 6개월 내에 유아가 관련된 행동을 보였는지에 근거하여 어머니 또는 교사가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를 하는 도구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수준을 평정하였다. 사회적 미성숙은 '나이에 비해 너무 어리게 행동한다'와 같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기 어렵거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하며, 위축은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 놓지 않는다'와 같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소극적이거나 철회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각 문항은 0점~2점의 3점 Likert 척도(전혀 그렇지 않다 = 0점, 조금 그렇다 = 1점, 자주 그렇다 = 2점)로, 표준화된 척도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요인분석 없이 사용지침에 따라 차원별 총점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점수의 범위가 0점~16점까지 가능한 본 척도의 Cronbach's α 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58, 위축은 .51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K-CBCL은 평정자의 내적인 일관성보다는 행동의 발생 빈도를 평가하는 척도로, 국내 표준화 과정에서 내적합치도가 낮은 경우 .56로 보고되고 있는 바(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3. 연구절차

본 연구의 자료는 연구대상자가 지필식 설문지에 자기보고식으로 응답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 문항의 이해도, 질문지 응답 시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45명의 어머니와 6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9년 5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질문지 작성에는 10분에서 1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대부분의 문항 또한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조사는 2019년 6월 17일부터 7월 25일까지 실시되었다. 총 530부의 질문지를 연구설명서와 함께 임의 선정된 어린이집 이용 가정으로 배포한 후, 어머니가 연구에 동의하여 동봉된 질문지에 응답한 유아에 한해 담임교사의 질문지를 추가 배포,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380명의 유아에 해당하는 것이었으며(회수율: 71.7%), 불성실하게 응답한 39명에 대한 자료가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32개 학급의 유아 341명에 대한 자료가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연구참여 교사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한 유아의 수는 최소 5명에서 최대 20명으로, 1명의 교사가 평균적으로 10.7명의 유아를 평정하였다.

4. 분석방법

연구대상자와 측정변인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어머니의 과보호,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SPSS 22.0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사용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 및 상관

어머니의 과보호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위축 및 또래놀이 상호작용 하위차원의 기술통계와 변인 간 상관을 살펴보았다. 먼저 어머니의 과보호의 평균은 2.35점($SD = .65$)으로 보고되어, 보통보다 다소 낮게 보고되었다. 사회적 미성숙의 평균은 .93점($SD = 1.33$), 위축은 1.63점($SD = 1.49$)으로 위축 점수가 다소 높았으나, 전반적으로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행동 수준은 매우 낮게 보고되었다. 한편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은 2.94점($SD = .53$)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반면, 놀이방해와 놀이단절은 각각 2.21점과 1.66점으로 보고되었다.

변인 간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 수준이 높아질수록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위

축 및 놀이단절의 수준은 높아지고, 놀이상호작용의 수준은 낮아졌다.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또한 놀이상호작용과는 정적, 놀이단절과는 부적 관계로 보고되었다. 한편 놀이방해는 어머니 과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 수준과도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계수인 VIF값을 살펴본 결과, 최소 1.00에서 최대 1.03의 범위로 3미만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변인들은 서로 독립적인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2.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 및 상관관계 (N = 341)

변인	①	②	③	④	⑤	⑥
① 어머니 과보호						
② 유아 사회적 미성숙	.20**					
③ 유아 위축	.11*	.50**				
④ 유아 놀이상호작용	-.14*	-.16**	-.02			
⑤ 유아 놀이단절	.12*	.19**	.11*	-.65**		
⑥ 유아 놀이방해	-.00	.07	-.01	-.47**	.47**	
M	2.35	.93	1.63	2.94	1.66	2.22
SD	.65	1.33	1.49	.54	.60	.59

* $p < .05$, ** $p < .01$.

주. 어머니의 과보호, 유아의 놀이상호작용, 놀이단절 및 놀이방해는 4점 척도임.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은 총점이 16점인 척도임.

2.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및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이론적 모형이 자료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구조방정식을 이용하여 적합도 수준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분석에서는 주요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별을 통제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였으며, 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 지수는 χ^2/df , TLI, CFI, RMSEA 및 SRMR를 이용하였다. 그 결과, χ^2/df 값은 9.553로 유의한 것으로 산출되었고, TLI와 CFI는 각각 .454와 .766으로 .90인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RMSEA와 SRMR 또한 .159와 .087로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니므로, 이론적 모형은 수용가능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수정지수(M.I)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의 오차 간 공분산이 가정되는 경우 모형이 가장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M.I. = 80.557). 일반적으로 다중매개모형을 가정하는 구조방정식의 경우 매개변인의 오차 간 공분산을 모형에 포함하는 것은 적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세희, 2020). 이는 모형 내에서 매개변인의 오차는 다른 변수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 외생변수의 일종이며, 외생변수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지 않는 것은 변수 간의 공분산이 0인 것을 가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본 연구에서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은 동일 평정자가 평정한

결과이며, 척도의 하위 차원이므로, 측정오차 간의 공분산을 가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매개변인의 오차 간 공분산을 가정한 수정모형의 적합도를 검증한 결과는 표 3에서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χ^2/df 값은 2.064로 유의하지 않았으며, 적합도 지수인 CFI와 TLI는 모두 .90 이상으로 높았고, RMSEA와 SRMR 또한 .08보다 작아 적합도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로써 이론적 모형의 수정모형은 자료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표 3. 이론적 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p	df/p	TLI	CFI	RMSEA	SRMR
초기모형	114.640	12	.000	9.553	.454	.766	.159	.087
수정모형	22.702	11	.019	2.064	.932	.972	.056	.031

이론적 모형의 경로별 계수의 추정치를 살펴본 결과 초기모형과 수정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는 모두 크게 달라지지 않아, 모형 수정으로 인해 적합도는 개선되고 계수 추정의 왜곡은 일어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이에 수정모형을 본 연구의 최종모형으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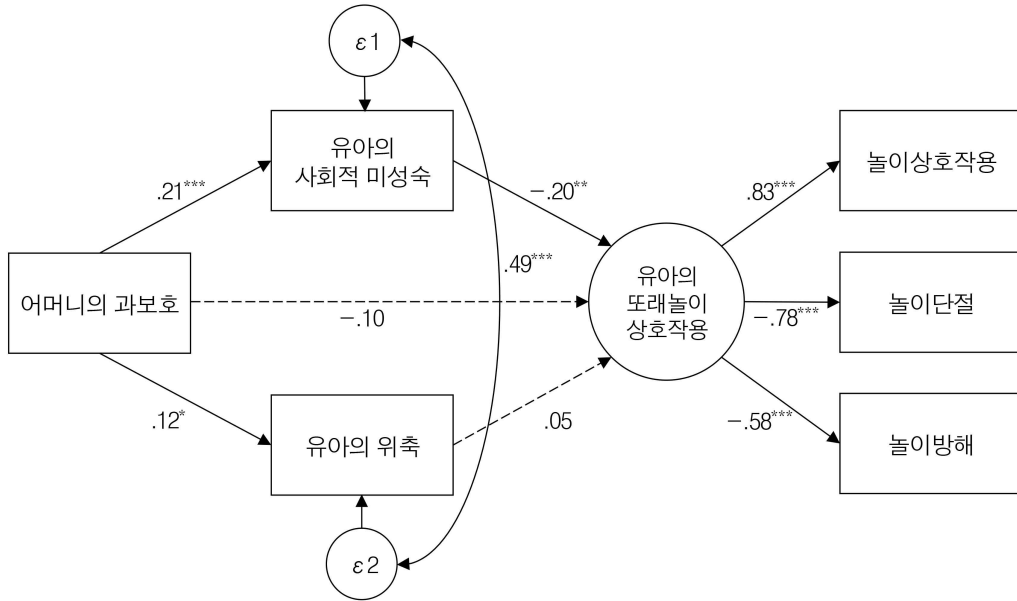
표 4. 이론적 모형의 경로계수

경로	초기모형		수정모형	
	β	C.R.	β	C.R.
어머니 과보호 → 유아 미성숙	.21	3.96***	.21	3.96***
어머니 과보호 → 유아 위축	.12	2.14*	.12	2.14*
어머니 과보호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10	-1.65	-.10	-1.66
유아 미성숙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19	-3.28**	-.20	-2.87**
유아 위축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05	.88	.05	.77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상호작용	.83	-	.83	-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단절	-.78	-11.11***	-.78	-10.98***
유아 또래놀이 상호작용 → 유아 놀이방해	-.58	-9.59***	-.58	-9.51***
ϵ 유아 사회적 미성숙 ↔ ϵ 유아 위축	-	-	.49	8.06***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이르는 경로에 대한 최종모형을 도식화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과 위축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가 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행동을 많이 할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유의미하게 낮아져,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을 매개로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게 밝혀지지 않아, 위축

을 통한 간접적인 효과는 지지되지 않았다. 또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지 않았다.



* $p < .05$, ** $p < .001$, *** $p < .001$.

주1. 모든 경로계수 추정치는 표준화계수임.

주2. 실선은 유의미한 경로, 점선은 유의미하지 않은 경로임.

주3. 통제변인으로 포함된 성별과 월령이 생략된 도식임.

그림 2. 최종모형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을 통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의 유의성을 살펴보기 위해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 방식으로 간접효과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어머니의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간접효과는 $-.03(p < .05)$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고, BC(Bias-Correlated) 신뢰구간은 $-.06$ 에서 $-.01$ 로 0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로써 최종모형에서 가정한 간접효과의 유의성은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어머니의 과보호가 유아의 미성숙 및 위축을 통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봄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를 이해하

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요약하고 이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과보호를 하는 어머니가 자녀의 자조기술 습득 기회를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자율성을 기르지 못한 유아가 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강화하게 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김춘경, 2000; Wood et al., 2007). 사회적 미성숙은 사회적으로 수용되거나 승인되는 행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유아가 다양한 사회적 행동을 해봄으로써 적절한 행동을 연습하거나 주변 사람들로 부터의 피드백을 받아 배울 수 있는 경험 및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김향지, 1996). 자녀의 사회적 미성숙의 원인이 되는 어머니의 과보호는 자녀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인한 것이 대부분으로, 자녀가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위험요인 등이 많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보호자의 과보호가 심화된다는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잘 드러난다(Chow, Pincus, & Comer, 2015; Hullmann et al., 2010; Mullins et al., 2007; Thomasgard & Metz, 1993). 그러나 어머니의 과보호는 특정 취약계층에 제한적으로 나타나는 양육 특성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해 중산층 일반 가정 중에서 과보호를 하는 어머니를 고찰한 Ungar(2009)는 자녀의 발달적 요구나 최근 육아 환경 등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편임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가 처리가능한 수준의 위협이나 책임을 감수하는 것이 발달에 기여하는 것임을 교육함으로써,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로, 본 연구 결과 어머니가 과보호적일수록 유아의 위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간 주 양육자의 양육행동과 자녀의 위축 간의 관계는 주로 어머니의 통제적거나 또는 회피적인 양육에 초점을 두고 연구되어 왔다(이경주, 신효식, 1998; LaFreniere & Capuano, 1997). 이는 과보호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연구에도 이어져, 과보호의 특성 중 하나인 과잉통제는 자녀의 조절적이며 유능감 있는 사회적 행동을 저해하는 요인인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권형원, 2020; 김성희, 정옥분, 2011; 손석한 등, 2004; 허묘연).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과잉통제적인 과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동기 또는 청소년기 자녀에게 제한되며,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행동은 지나친 통제나 개입의 측면보다는 과도한 수준의 보호와 도움에 집중된다는 점이다. 즉, 과보호적인 어머니가 아동이 이후 자녀를 대상으로 이들의 의견 고려 없이 지나치게 이들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간섭하여, 자기효능감이 떨어지고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행동을 보이게 되는 것과는 달리, 유아에 대한 어머니의 과보호는 연령에 맞지 않는 도움을 주거나 주변 환경에 대한 지나친 걱정으로 활동을 제약하는 특성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과보호를 받은 유아가 적절한 경험으로부터 고립되거나 사회적 관계망이 단절되어, 관계 맺기를 어려워하거나 걱정이나 불안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그러나 유아에 대한 과보호가 지나친 통제나 간섭보다는 과도한 염려와 걱정에 기초한다는 점은 아직 발달적으로 미숙하여 위험요인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한 유아에게는 보호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유아의 위축행동과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살펴본 김지현과 정지나(2011)의 연구에서는 두 특성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유아의 위축 수준이 어머니의 불안으로 기인한 보호적인 행동으로 높아

질 수 있음을 밝힌 본 연구의 결과는 또래와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위해 어머니의 보호나 애정이 적절한 수준으로 제공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매개변인에 해당하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과 위축 중 사회적 미성숙만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유의미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이 감소된다는 본 연구의 결과는 사회적 기술 결함이나 부족에 따른 문제 행동이 아동의 적절한 사회적 관계 형성을 방해한다는 김순자와 조용태(1998)의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반면 유아의 위축 수준은 긍정적인 또래놀이 상호작용 수준을 낮추는데 역할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해석을 위해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유아의 위축은 놀이단절과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지만 놀이상호작용 및 놀이방해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유아가 위축될수록 놀이 중 또래에게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상황은 빈번해지나, 높은 위축 수준이 또래에게 친사회적인 행동을 덜 보이거나 놀이 중 부정적인 정서표현과 공격적 행동의 증가로 이어지는 않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잠재변인으로 가정하였고, 놀이상호작용, 놀이방해 및 놀이단절의 3개 관찰변인으로 측정되었기 때문에,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이 본 연구에서 위축의 영향력이 제한적으로 나타난 결과는 유아기의 위축이 사회적 유능감이나 성숙 수준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리는 특성이라기보다는 생애 초기라는 발달단계상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본 Bukowski(1990)와 Younger와 Boyko(1987)의 관점과도 맥을 같이 한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유아기의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같은 핵심적인 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단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기 위축이 갖는 발달적 경향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편 그간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내재화 문제의 영향을 살펴본 선행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상호작용만이 분석에 사용되거나 내재화 문제를 구체적인 문제별로 살펴보는 대신 총점을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다(김세리, 이강이, 2016; 최은정, 김은향, 2019; 최혜란 등 2017).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잠재변인으로 모형에 포함하여 놀이단절과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력을 하나의 모형에서 살펴보았다. 실제로 본 연구의 변인 간 상관 결과를 살펴보면,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는 위축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었다. 즉, 위축이 또래놀이 상호작용 중 놀이방해에 미치는 영향력이 유의미한 수준이 아니므로, 잠재변인인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력 또한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또래놀이 상호작용의 하위 차원에 따라 내재화 문제의 영향력이 차별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어머니의 과보호는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 수준을 높여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감소시키는 간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사회적 미성숙이 어머니의 과보호와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이 아동의 또래관계 기술이나 상호작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밝혀진 선행연구 결과(강주희, 2013; 이선미, 강윤희, 2018)의 매개변인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로써 어머니의 과보호로 인해 사회관계 내에서의 기회를 많이 갖지 못한 유아가 놀이상황 중 또래와 갈등이 있

어나 규칙 등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연령에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못해, 또래와의 놀이 중 진행되는 놀이를 지속하지 못하거나 단절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 과보호가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 모형이 지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 자체가 유아기 자녀의 사회적인 문제로 직접 이어지는 않음을 밝혔다. 이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측면에서 해석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먼저 어머니 과보호의 직접효과가 유의미하지 않은 이유로는 본 연구에서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가한 평정자가 어머니가 아닌 교사인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같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맥락을 어린이집이라고 보고, 교사가 평정한 또래놀이 상호작용 자료를 활용하였다. 그러나 부모와 교사 모두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평가 자료를 모두 분석한 Burgess와 Ernst(2020)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놀이 중 긍정적 상호작용 수준은 부모와 교사가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하였으나, 놀이 방해와 놀이단절 점수는 부모의 평정 결과가 교사의 평정 결과보다 높았다. 사실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은 집에 비해 다수의 유아가 함께 놀이기 위한 놀잇감의 수도 적정하며, 부정적인 정서에 대해서도 조절적인 표현이 기대되는 맥락이다. 즉, 유아의 입장에서는 가정보다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최대한으로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교사가 평정하는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어머니가 관찰 가능한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은 다른 양상일 수 있다.

또 다른 해석으로는 어머니의 과보호적인 양육행동이 유아의 사회적 행동을 예측하기에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미국 내 라틴계 가정을 대상으로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기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간의 관계를 살펴본 Gonzalez(2019)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전통적인 양육태도의 유형 중 어머니의 민주적인 양육태도와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또래놀이 상호작용과 관계가 없었다. 반면 허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놀이상호작용을 낮추고 놀이단절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허용적인 어머니는 자녀에게 성숙에 대한 요구 수준은 낮고 자녀를 보살피는데 적극적이기 때문에(Kostelnik et al., 2017), 과보호적으로 양육할 수 있다. 다만 허용적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통제 및 합리적인 의사소통 수준까지 낮은 경향을 보이는 반면 과보호적인 어머니는 자녀에 대한 통제 수준이 높으므로, 허용적인 양육이 과보호적 양육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은 온정적, 반응성, 통제성, 허용성 등 긍정적 양육과 부정적 양육 특성이 혼재되어 복합적으로 표현될 수 있다. 이에 김재희(2020)는 어머니의 과보호가 긍정적 또는 부정적 양육행동에 주로 초점이 된 전통적인 양육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양육태도임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과보호적인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전통적인 양육태도 유형에 비해 어떤 특징을 갖는지 등에 대해 좀 더 탐색이 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과보호의 영향력이 유아의 심리적 특성을 통해 행동적 특성에 이르는 경로를 검증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성별이나 월령과 같은 유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만을 통제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이나 성격, 불안과 같이 과보호적인 양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자신의 심리적 특성에 따라 이러한 경로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Parker & Lipscombe, 1981), 추후 연구에

서는 이를 고려하여 보다 타당한 과보호의 영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기관을 통해 학급별로 연구대상이 모집된 본 연구의 특성상 한 명의 교사가 복수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을 평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이 경우 교사의 고유한 특성이나 학급의 사회관계 특성으로 인해 개인 수준의 분산 외에 학급별 분산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의 자료는 위계적인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연구모형에는 교사 또는 학급 수준의 특성이 독립 변인 또는 매개 변인으로 포함하지 않아 분석 시 다층구조를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추후 연구에서는 다층 구조방정식 등을 활용하여 분석하는 경우 보다 타당한 결과가 도출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과보호를 어머니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 중 유아를 과보호 양육행동을 하는 주체는 아버지, 조부모 또는 양육도우미 등이 가능하다. 특히 최근 중단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과보호 양육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상대방 효과(partner-effect)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Brenning, Soenens, Petegem, & Kins, 2017), 어머니 이외의 다양한 양육자로 과보호의 연구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간 강조된 유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중요성에 기초하여(이선남, 이경옥, 2015) 과보호하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자녀가 또래와의 놀이 중 보이는 사회적 특성에 어떤 경로를 통해 영향을 미치는지를 밝힘으로써,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어머니의 다양한 양육행동 중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아온 양육행동인 과보호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관심을 환기시켰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주희 (2013). 주 양육자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아동의 또래관계 관련성.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연희 (2012). 남녀 유아의 부정적 정서성과 놀이 시 또래상호작용의 관계에 대한 교사-유아간 갈등적 관계의 조절효과. **유아교육연구**, 32(2), 29-48. doi:10.18023/kjece.2012.32.2.002
- 권형원 (2020). 청소년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과보호 및 사회부과적 완벽주의, 분노표현양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미경, 김연화, 한세영 (2008). 어머니와 유아의 분리불안과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또래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6(7), 71-84.
- 김성희, 정옥분 (2011).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의 과보호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및 또래관계: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18(3), 69-92.
- 김세리, 이강이 (2016).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지위, 가정환경 자극 및 유아의 행동문제 간의 구조적 관계.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6), 41-58. doi:10.14698/jkce.2016.12.06.041

- 김순자, 조용태 (1998).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적 기술 발달 경향. **대진논총**, **6**, 97-114.
- 김영아, 이진, 문수중, 김유진, 오경자 (2009). 한국판 CBCL 1.5-5의 표준화 연구.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1), 117-136. doi:10.15842/kjcp.2009.28.1.007
- 김재희 (2020). 어머니의 한계설정과 과보호/허용 양육이 유아의 외현화 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우울과 유아의 의도적 통제에 의한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6**(3), 99-117. doi:10.14698/jkce.2020.16.03.099
- 김정림, 허미경 (2013).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33**(2), 101-119. doi:10.18023/kjece.2013.33.2.005
- 김지현, 정지나 (2011). 유아의 위축 행동에 영향을 주는 어머니 양육행동과 유아의 사회적 기술. **대한가정학회지**, **49**(9), 15-24.
- 김춘경 (2000). 부모의 과잉보호가 아동의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개인 심리학적 분석. **놀이치료연구**, **4**(1), 35-49.
- 김향지 (1996). 사회성기술검사(SSRS)의 타당화 연구: 초등학교 정신지체 아동을 대상으로. **특수교육학회지**, **17**(1), 121-135.
- 류정민, 신나나 (2018). 취업모의 분리불안, 직업만족도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4**(1), 1-20. doi:10.14698/jkce.2018.14.01.001
- 류호정, 채규만 (2017). 소아정신건강의학과 내원 아동의 내재화, 외현화 장애 수준과 사회기술의 관계에서 아버지 양육태도의 조절효과.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7**(2), 457-472. doi:10.14257/AJMAHS.2017.02.13
- 문혜련, 엄정애 (2009). 만 5세 남녀 유아의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와 부모의 언어통제유형간 관계. **교육과학연구**, **40**(2), 159-181.
- 민미희 (2019). 교사-유아 상호작용, 유아의 또래 놀이 상호작용 및 사회적 유능감이 유아의 학습준비도에 미치는 영향: 성별간 다집단 분석.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6**(3), 1-22. doi:10.22155/JFECE.26.3.1.22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지현 (2010). 위축아동의 위축행동 감소와 자아개념 향상을 위한 인간중심 미술치료 사례연구. 영남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현주 (2003). 의사소통 모래상자를 이용한 위축아동의 모-자녀간의 행동변화 사례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소언주 (2001). 어머니의 분리불안: 어머니의 특성, 아동의 초기 기질 및 과보호적 양육행동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석환, 노경선, 허묘연, 정현옥, 이소희, 김세주 (2001). 청소년기 문제행동과 부모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40**(4), 605-615.
- 손은애 (2006). 만 4세 여아의 또래놀이 참여과정 탐색.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경자, 하은혜, 이혜련, 홍강의 (2007). **아동 · 청소년 행동평가척도**. 서울: 휴노컨설팅.

- 이경주, 신효식 (1998). 청소년기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학대유형과 부적응행동. **대한가정학회지**, 36(8), 39-50.
- 이선남, 이경옥 (2015). 유아의 초기 발달수준과 또래상호작용 간의 관계에서 어머니의 사회적 양육행동의 매개효과. **유아교육연구**, 35(4), 381-396. doi: 10.18023/kjece.2015.35.4.017
- 이선미, 강윤희 (2018). 유아의 자아탄력성과 리더십 및 어머니의 과보호 행동이 유아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23(6), 261-278. doi:10.20437/koaece23-6-11
- 이숙, 최정미 (2006). 어머니의 과보호 양육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위축 및 자기유능감.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지**, 17(2), 69-79.
- 이정희, 한세영 (2019). 어머니의 자기분화, 어머니의 분리불안 및 과보호 양육행동이 유아의 분리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40(6), 31-47. doi:10.5723/kjcs.2019.40.6.31
- 정선교, 안선희 (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학습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 정윤희, 이인수 (2012). 부모 양육태도와 자녀의 분리-개별화와의 관계에서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11), 225-248.
- 정은영, 장정숙 (2008).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개발: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0(2), 293-312.
- 정진나 (2018). 유아기 어머니 우울과 학령초기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보호요인으로서의 긍정적 또래상호작용: 성차를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38(6), 117-136. doi:10.18023/kjece.2018.38.6.005
- 정현빈 (2010).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운주, 김은영 (2014). 유아의 기질 및 부모양육방식이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육아정책연구**, 8(2), 155-174.
- 최소영, 신희영 (2015). 유아의 놀이성과 교사-유아 상호작용이 또래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2), 311-329. doi:10.14698/JKCCE.2015.11.2.311
- 최은정, 김은향 (2019). 가족상호작용, 부모-자녀상호작용, 놀이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유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24(2), 1-21. doi:10.20437/koaece24-2-01
- 최혜란, 유지아, 김선미 (2017).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른 양육태도, 모-자녀상호작용,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및 문제행동 간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3), 15-30. doi:10.5392/JKCA2017.03.015
- 최혜영, 신희영 (2008). 아동 또래 놀이행동 척도(PIPPS)의 국내적용을 위한 타당화 연구. **아동학회지**, 29(3), 303-318.
- 최혜영, 이은혜 (2005). 아동의 또래 상호작용과 교사신념 및 교사행동 간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5(5), 319-342.
-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홍세희 (2020). **Program 2. 매개, 조절,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서울: 박영사.

홍정민 (2008). 어머니의 양육 및 놀이신념에 따른 유아의 또래놀이 상호작용.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Achenbach, T. M. (1991). *Manual for the Child Behavior Checklist/4-18 and 1991 profile*. Burlington, VT: University of Vermont Department of Psychiatry.

Benedek, T. (1970). Motherhood and nurturing. In E. J. Anthony & T. Benedek (Eds.), *Parenthood: Its psychology & psychopathology* (pp. 153-166). Boston, MA: Little, Brown.

Bögels, S. M., & van Melick M. (2004).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port, parent self-report, and partner report of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rs and anxiety in children and parent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7*(8), 1583-1596. doi:10.1016/j.paid.2004.02.014

Brenning, K. M., Soenens, B., Van Petegem, S., & Kins, E. (2017). Searching for the roots of over-protective parenting in emerging adulthood: Investigating the link with parental attachment representations using an actor 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6*(8), 2299-2310. doi:10.1007/s10826-017-0744-2

Burgess, E., & Ernst, J. (2020). Beyond traditional school readiness: How nature preschools help prepare children for academic success. *Eric, EJ1255000*, 17-33.

Burgess, K., Rubin, K. H., Cheah, C., & Nelson, L. (2001). Behavioral inhibition, social withdrawal, and parenting. In W. R. Crozier & L. Alden (Eds.), *The essential handbook of social anxiety for clinicians* (pp.99-120). New York: Wiley.

Bukowski, W. M. (1990). Age differences in children's memory of information about aggressive, socially withdrawn, and prosociable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61*(5), 1326-1334. doi:10.1111/j.1467-8624.1990.tb02864.x

Chawla, L., Keena, K., Pevec, I., & Stanley, E. (2014). Green schoolyards as havens from stress and resources for resilience in childhood and adolescence. *Health & Place, 28*, 1-13. doi:10.1016/j.healthplace.2014.03.001

Chow, C., Pincus, D. B., & Comer, J. S. (2015). Pediatric food allergies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Examining the potential moderating roles of maternal distress and overprotection.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40*(10), 1065-1074. doi:10.1093/jpepsy/jsv058

Clarke, K., Cooper, P., & Creswell, C. (2013). The Parental Overprotection Scale: Associations with child and parental anxiety.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151*(2), 618-624. doi:10.1016/j.jad.2013.07.007

Denham, S. A. (2006). Social-emotional competence as support for school readiness: What is it and how do we assess it? *Early Education and Development, 17*(1), 57-89. doi:10.1207/s15566935eed1701_4

Doh, H., & Falbo, T. (1999). Social competence, maternal attentiveness, and overprotectiveness: Only

- children in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3(1), 149-162. doi:10.1080/016502599384044
- Eggum-Wilkens, N. D., Fabes, R. A., Castle, S., Zhang, L., Hanish, L. D., & Martin, C. L. (2014). Playing with others: Head start children's peer play and relations with kindergarten school competenc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9(3), 345-356. doi:10.1016/j.ecresq.2014.04.008
- Fantuzzo, J., Coolahan, K., Mendez, J., McDermott, P., & Sutton-Smith, B. (1998). Contextually-relevant validation of peer play constructs with African American head start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3(3), 411-431. doi:10.1016/S0885-2006(99)80048-9
- Fantuzzo, J., Sutton-Smith, B., Coolahan, K. C., Manz, P. H., Canning, S., & Debnam, D. (1995). Assessment of preschool play interaction behaviors in young low-income children: Penn interactive peer play scale.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10(1), 105-120. doi:10.1016/0885-2006(95)90028-4
- Ginsburg, K. R. (2007). The importance of play in promoting healthy child development and maintaining strong parent-child bonds. *Pediatrics*, 119(1), 182-191. doi:10.1542/peds.2006-2697
- Gonzalez, O. H. (2019). Play behaviors in Latino dual language learners: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lassroom peer pla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outh Florida, Tampa, USA. Retrieved from <https://scholarcommons.usf.edu/etd/7808>
- Kostelnik, M. J., Soderman, A. K., Whiren, A. P., Rupiper, M. L., & Gregory, K. M. (2017). Guidi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 learning (8th ed.), 영유아의 사회정서 발달과 교육(박경자, 김송이, 신나리, 권연희, 김지현 옮김). 경기: 교문사(원판 2015).
- Hastings, P. D., & Rubin, K. H. (1999). Predicting mothers beliefs about preschool-aged children social behavior: evidence for maternal attitudes moderating child effects. *Child Development*, 70(3), 722-741. doi:10.1111/1467-8624.00052
- LaFreniere, P. J., & Capuano, F. (1997). Preventive intervention as means of clarifying direction of effects in socialization: Anxious-withdrawn preschoolers case.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3), 551-564. doi:10.1017/S0954579497001302
- Lowinger, R., & Kwok, H. (2001). Parental overprotection in Asian American children: A psychodynamic clinical perspectiv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Practice, Training*, 38(3), 319-330. doi:10.1037/0033-3204.38.3.319
- Mullins, L. L., Wolfe-Christensen, C., Hoff, A. L., Carpentier, M. Y., Gillaspay, S., Cheek, J et al. (2007). The relationship of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child vulnerability, and parenting stress to uncertainty in youth with chronic illnes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32(8), 973-982. doi:10.1093/jpepsy/jsm044
- Nelson, L. J., Rubin, K. H., & Fox, N. A. (2005). Social withdrawal observed peer acceptance and

- the development of self-perceptions in children ages 4 to 7 year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20(2), 185-200. doi:10.1016/j.ecresq.2005.04.007
- Parker, G., & Lipscombe, P. (1981). Influences on maternal overprotection. *The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38(4), 303-311. doi:10.1192/bjp.138.4.303
- Rubin, K. H., Hymel, S., Mills, R. L., & Rose-Krasnor, L. (1991). Conceptualizing different developmental pathways to and from social isolation in childhood. In D. Cicchetti & S. Toth (Eds.), *Rochester Symposium 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2* (pp. 91-122). Hillsdale, NJ: Erlbaum.
- Shearer, R. J. B., McWayne, C. M., Mendez, J. L., & Manz, P. H. (2016). Preschool peer play interactions, a developmental context for learning for ALL children: Rethinking issues of equity and opportunity. In K. E. Sanders & A. W. Guerra (Eds.), *The culture of child care: Attachment, peers, and quality in diverse communities* (pp. 179-202).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llmann, S. E., Wolfe-Christensen, C., Ryan, J. L., Fedele, D. A., Rambo, P. L., Chaney J. M et al. (2010). Parental overprotection, perceived child vulnerability, and parenting stress: A cross-illness compariso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in Medical Settings*, 17(4), 357-365. doi:10.1007/s10880-010-9213-4
- Thomasgard, M., & Metz, W. P. (1993). Parental overprotection revisited. *Child Psychiatry Human Development*, 24(2), 67-80. doi:10.1007/BF02367260
- Ungar, M. (2009). Overprotective parenting: Helping parents provide children the right amount of risk and responsibility.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7(3), 258-271. doi:10.1080/01926180802534247
- Van der Bruggen, C. O., Stams, G. J. J. M., & Bogels, S. M. (2008). Research review: The relation between child and parent anxiety and parental control: A meta-analytic review.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9(12), 1257-1269. doi:10.1111/j.1469-7610.2008.01898.x
- Wood, J. J., Kiff, C., Jacobs, J., Ifekwunigwe, M., & Piacentini, J. C. (2007). Dependency on elementary school caregivers: The role of parental intrusiveness and children's separation anxiety. *Psychology in the Schools*, 44(8), 828-837. doi:10.1002/pits.20268
- Younger, A. J., & Boyko, K. A. (1987). Aggression and withdrawal as social schemas underlying children's peer perceptions. *Child Development*, 58(4), 1094-1100. doi:10.1111/j.1467-8624.1987.tb01443.x

논문투고: 20.08.17
수정원고접수: 20.12.20
최종게재결정: 21.02.10